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9, 역사 비평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우리는 지금 해석학을 의사소통의 세 가지 측면, 즉 저자와 텍스트, 그리고 독자의 관점에서 살펴봤거나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자와 역사적 중심 접근 방식을 시작으로 우리는 의미를 주로 텍스트 뒤에 있는 것으로 보거나 해석의 초점으로 봅니다. 해석의 초점은 텍스트 뒤에 있는 것, 즉 텍스트 뒤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저자, 텍스트를 생산하는 역사적 상황. 역사 비평을 소개할 때, 그런데 비평은 파괴적, 판단적, 부정적인 의미의 비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제공 측면에서 속기 쉬운 비평이 아닌 보다 긍정적인 비평을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추론, 자신의 신념에 대한 건전한 정당화.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역사비평을 볼 때, 역사비평이 성경을 해석하는 보다 신학적이고 전통 지향적인 접근 방식과 대조적으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고려했습니다. 역사적 접근은 단순히 성경을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으로 조건화된 텍스트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해석에 대한 역사적, 비판적 접근 방식의 기초가 되는 최소한 세 가지 원칙이나 가정을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 본문을 역사적 맥락, 원인과 결과로 검토할 때 인간 추론의 우선 순위, 인간 추론 능력과 상식,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문서를 가정하는 것에서 역사적, 비판적 접근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닫힌 연속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가 반복된다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진실로 받아들여졌다는 유추의 원리 또는 가정은 우리가 현대에서 경험하는 것과 유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문서를 역사적, 비평적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진행되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의 파생물 중 하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없고 독특한 사건이 일어날 여지가 없으며 부활이나 바다 건너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역사적 비평과 함께 작동하는 이러한 원칙과 일치하는 설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부정적이고 반초자연적인 가정을 제외하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역사적 접근 방식이 타당하며 성경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영감에 대한 이해로 돌아가면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역사비평적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계시하고, 증언하고, 계시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정 시대와 장소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기록한다고 주장하므로, 구약과 신약을 원래의 역사적 맥락 내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구약성서와 신약성경 본문은 비록 역사적 문서에 못지않지만 단순한 역사적 문서 그 이상임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역사적이면서도 신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칸트에서 발견된 일부 이원론으로 돌아가는 역사-신학 이분법을 거부합니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문서는 단순한 역사적 행위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종교 문헌으로서 계속해서 신앙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문헌입니다. 그러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옹호되고 입증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역사에 어긋나지 않고, 역사에 어긋나는 신앙이 아니라, 역사나 역사적 추론에 어긋나지 않고, 그것에 뿌리를 두고 그에 부합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약과 구약의 문서를 역사적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 배치하고 역사적 탐구 방법을 사용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인 접근 방식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신학문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들입니다. 이 문서는 역사상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계시하는 역할을 계속한다고 주장하는 문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과 관련된 역사적 접근 방식을 생각할 때, 구약과 신약 문서에 대한 역사적 접근 방식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본문의 역사를 고찰하고, 둘째로 본문 속의 역사를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역사를 검토하는 것은 텍스트의 생산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즉, 저자와 독자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텍스트를 생산하는 역사적 상황이다. 본문의 역사는 본문 내에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문화적 참고 자료, 관습 또는 조사해야 할 유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구약성서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사례의 대부분, 특히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사례는 신약성서에서 나올 것입니다. 신약성서가 연구와 집필, 교육에 있어 제가 주요 관심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구약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서론과 주석, 또는 성경 서문과 신구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전통적인 질문 중 일부입니다. 저자, 독자, 그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등 모든 것을 문서를 역사적 맥락에 배치하고 문서가 어떻게 성장하고 이를 해결하는지 이해하기를 희망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를 고려하고 있다면 저자와 저자가 누구였으며 그의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죄악으로 인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외국으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만드신 것,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를 거부하고 예를 들어 이사야서가 그러한 상황에 대한 반응임을 이해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아니면 다시 본문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본문의 역사를 검토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보고 역사적 인물, 역사적 장소, 역사적 사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특정 문화적 가치에 대한 언급, 또는 특정 역사적 인물이나 인물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 또는 저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알려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장소. 예를 들어, 이것은 특히 개인, 역사적 사건, 관습, 가치 또는 장소에 대한 언급을 자주 찾는 이야기 문학에서 두드러진 구약 성서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롯기를 통째로 읽을 때 본문에 나오는 독특한 역사, 역사적 또는 문화적 사건과 가치 등에 대한 언급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도 나의 의도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와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롯이 보아스의 발을 드러내었다는 3장과 4절의 언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발을 드러내다라는 관용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본문을 이해하려면 해당 참조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면 룻기 4장 전체에 나오는 용어를 일반적인 영어 번역으로 표현하면 친족 대속자란 무엇입니까? 친척 구속자는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서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룻기 4장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어떤 빛을 밝혀 줍니까? 그리고 다시, 우리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장소를 다시 언급하는 구약성서의 다른 본문, 특히 이야기에서 나온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리적 참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에게 매우 낯설거나 매우 다를 수 있지만 텍스트를 역사적 맥락에 배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문화적 가치나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입니다. 신약성서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텍스트의 역사를 고려해 볼 때 흥미로운 텍스트 중 하나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저자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독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텍스트가 탄생했습니다. 신약성경의 골로새서는 흥미로운 예를 많이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는 그 책의 저자에 대해 실제로 의문이 제기되는 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명 문제에 많은 시간을 쏟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역사적, 비판적 관점에서 신약성서 문서에

접근하는 일부 사람들은 가명성이 성경 본문에서 유효한 현상이었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즉, 가명은 단순히 1세기에 글쓰기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들은 그러한 접근 방식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골로새서를 바울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아마도 나중에 바울의 제자가 쓴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바울의 전통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썼을 글을 누가 쓰고 있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이름으로 글을 쓰노라 .

그러나 내 생각에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바울이 저자였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는 아무 것도 없지만, 바울의 다른 책들과 일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바울이 기록하지 못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실제로 바울이 저자라는 골로새서의 저자 귀속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더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나 상황, 위기입니다. 독자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을 둘러싼 상황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골로새 도시와 그 도시가 리쿠스 계곡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서부, 즉 오늘날의 터키. 우리가 그 도시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그 도시가 아마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가장 덜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이 골로새에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교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 채 교회에 편지를 쓴 보기 드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한.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바울이 그 도시에 편지를 쓰는 이유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이 그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대부분의 편지가 단순히 허공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것은 때때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르비평과 서신의 문학적 장르를 살펴볼 때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대부분의 편지는 가끔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매우 특정한 경우나 매우 특정한 상황에 대응하여 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와 같은 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시와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독자가 누구인지, 상황이나 문제 또는 이슈가 무엇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앉아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그 상황이 어땠을지에 대해 꽤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와 같은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다른 편지 몇 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나 유다서 또는 바울의 디모데전서와 같은 다른 신약성서 문서들 중 일부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일종의 일탈적이거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반응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에 침투했거나 침투하기 시작했거나 교회에 침투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서신 그룹에 골로새서를 포함시켜야 합니까? 골로새서를 어떤 종류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대응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기에는 소수의 해석자들과 신약 해석자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어떤 특정한 위기에 대응하여 기록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낸 바울의 편지 뒤에는 특정한 거짓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바울은 단지 그리스도인들과 골로새가 직면했던 몇 가지 일반적인 압력과 일반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그것은 오늘날 신약성서 학자들과 신약성서 학생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는 실제로 어떤 종류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반응으로 기록되었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주로 바울이 책의 두 번째 장에서 말하는 것들 중 일부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2장 8절에서 바울은 누가 헛되고 속이는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보다는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기본 원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이 공허하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혀 잘못된 길로 인도되고 속임을 당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로 넘어가면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장 16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반응할 수 있는 확실히 일탈되거나 거짓된 가르침을 드러낸다고 확신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독자 중 일부가 이미 굴복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니라.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누구든지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즐기는 사람이 여러분의 상을 박탈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그의 육신적인 생각이 그를 우쭐대며 헛된 생각으로 우쭐대게 만듭니다. 그는 머리와 의 연결을 잃었고 온 몸은 인대와 힘줄로 지탱하고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에 따라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여전히 그것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 규칙에 복종합니까? 취급하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도 마십시오. 이것들은 모두 사용하면 사라질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명령과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규정은 참으로 스스로 부과한 예배와 함께 지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 겸손과 신체에 대한 가혹한 대우.

그러나 감각적 방종을 억제하는 데에는 가치가 부족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에게 이것이 Paul이 특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들리느냐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골로새인들에게 전파된 복음에서 벗어난 일종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그는 그것을 대체하거나 그것을 제쳐두기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나는 이 본문이 특히 바울이 특정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갈라디아서처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가르침은 복음을 전하려는 것도, 교회에 침투하려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존재 자체가 일부 골로새서에게 바울이 의심하는 위협이나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 장을 읽으면서 나는 바울이 다소 구체적인 거짓 가르침에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약전서 학생들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대답하기 훨씬 더 어려운 질문은 이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반응한 이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에도 이 질문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안을 보면 한 시기에 한 학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도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한 신약학자는 이 교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제안이 적어도 40가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르침의 성격을 결정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동의할 수 없다면.

그러나 예를 들어 아주 일찍부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영지주의에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는 2세기까지 종교에 있어서 완전한 사고체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버렸습니다.

또는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나중에 등장하여 본격적인 영지주의로 구체화된 문제와 신념에 반응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토아주의와 같은 다른 종교적 신념이나 운동이 바울이 다루고 있는 가르침의 주요 문제라고 제안했습니다. 또는 다른 이교도 종교적 신념.

그러나 일부는 명확한 언급 때문에 이를 회피했습니다. 명확한 유대인 언급. 16절에서 제가 읽은 구절 중 하나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또는 종교 축제와 관련하여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2장 앞부분에서 할례에 관해 언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는 이 운동이 무엇이든 그 안에 유대적 요소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골로새서 뒤에 있는 가르침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설명 중 하나를 생각해 냈습니다.

다시 우리가 책 뒤에 숨겨진 역사적 상황을 재구성하려고 할 때. 가장 일반적인 제안 중 하나는 바울이 일종의 혼합주의적 종교적 신념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다른 이교도 종교적 신념과 함께 유대인 요소의 조합입니다.

아니면 민간 종교적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책 전반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작성자가 이 사람이 머리와 연결이 끊어졌다고 말한 섹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온 몸이 지탱하고 연합하여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따라서 또 다른 결과는 종종 유대인의 이교도 종교적 신념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일종의 유대교와 그리스-로마 신앙의 혼합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민간 신앙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평가절하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책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유대교와 그리스-로마 종교적 신념 사이의 혼합주의 또는 결합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제안 중 일부입니다. 다시 한번 역사적 배경을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본문의 역사.

그러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또 다른 가능한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배경에 관한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제가 실제로 본 것 중 하나입니다. 이 책 전체에 걸쳐 유대인의 언급이 있습니까?

할례에 대한 언급은 2장 앞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전체에 걸쳐 유대인의 언급이 나옵니다. 초승달과 안식일에 대한 언급. 그런데 흥미롭게도 초승달과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 또는 문구는 다른 구약성경 본문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특히 안식일에 대한 언급은 유대인의 본성에 대한 죽음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마도 이 가르침이 일종의 유대교일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1세기 유대교의 바깥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의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1세기의 유대교는 매우 다양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유대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가르침.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교와 반드시 똑같은 유형에 속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18 절의 말씀 을 보십시오 . 누구든지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좋아하는
 자들로 인해 너희 상이 박탈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종의 환상적
 경험이나 신비로운 경험을 제안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대교를 특징짓는 그런 종류의 언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유대교가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같은 종류의 유대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반드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심지어 빌립보서 3장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유대교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대신에 바울이 좀 더 묵시적인 유형의 유대교에 적합할 수 있는 유대교를
 언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그것은 종말을 낳은 유대교의
 유형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책들.

우리는 수많은 종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이외의 묵시록.

그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환상적인 경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환상적 경험에는 구약 율법의 엄격한 준수가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을 피합니다.

환상 체험을 준비하기 위한 금식. 이미 16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새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 여러 번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밖에서 눈을 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신비주의적이거나 묵시적인 유형의 유대교일 것입니다.

이것이 18절에 천사 승배에 대한 언급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종종 메르카바 유대교(Merkabah Judaism)라고 불리는 특정 유형의 유대교입니다. 환상이 하늘을 통해 올라가는 환상 경험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종종 목표는 마지막 천국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다른 천국에는 천사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는 종종 천사들이 승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유대교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표현은 초하루와 절기와 안식일입니다. 사해 두루마리에서도 몇 번 발견됩니다. 게다가 흥미롭게도.

16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도 음식과 음료에 대한 구약의 금지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사항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해 두루마리에서 흥미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회원이 되고 싶을 때. 특정 음식과 음료를 삼가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의 기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로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Qumran 커뮤니티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종종 심판의 기간을 겪었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삼가야 했던 곳.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음식과 음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많은 텍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18절에서 발견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겸손을 기뻐하는 사람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천사 숭배는 여러분을 부적격자로 만듭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본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해 두루마리에 있는 많은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희생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무엇이었는가입니다.

그것은 연속적인 안식일에 행해지는 예배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 중 몇 가지에 있습니다. 하늘 성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목적 중 하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회중이 공동체였습니까? 거의 천사들과 합류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왕좌에서 하나님을 숭배할 때. 또 다른 흥미로운 텍스트는 4Q491이라는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4Q는 기본적으로 네 번째 동굴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사해 두루마리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다양한 동굴에서 발견되었으며 동굴에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491의 4번 동굴에 있습니다.

다른 문서와 구별하기 위한 문서의 번호일 뿐입니다. 4Q491이라는 문서 중 하나에서. 인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직자일 것 같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리고 천국의 영역을 목격했습니다.

천사가 이제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

그래서 사해 두루마리인지. 골로새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배후에 누워 있으십시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비슷한 유형의 유대교를 염두에 두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묵시적인 유형의 유대교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환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종말을 낳았습니다.

혹은 바울은 이와 유사한 유대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해 공동체와 분파되거나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쿨란 공동체.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할 것입니다. 금욕주의도 흥미롭다.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취급하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영지주의나 금욕주의 또는 그리스 로마 유형의 종교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사해 두루마리.

쿰란 공동체.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에 있어서 충분히 엄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유대인 집단의 법에 대한 태도.

Qumran 커뮤니티와 같은 것입니다. 고도로 금욕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도 가능합니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일탈적인 가르침.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골로새서의
뒷편. 유대교는 아마도 묵시적인 유형 지향적인 유대교 유형일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신비로운 유형의 유대교. Qumran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로 배경을 제공합니다.

역사적 맥락과 배경.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라면.

아마도 이 거짓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교는 갈라디아서와 다르다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유대교는 메시아주의가
아니었고 기독교 유대교라고 주장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그 대신 골로새서 전체에 걸쳐 기독교론적인 강조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그의 반응이 아닙니다.

폴이 직접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 유대교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율법을 금욕적으로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비전 경험. 그리고 천사 숭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교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보충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심지어 그리스도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리고 Paul은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아니요, 이 유대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면죄부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각적 방종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장이 끝나면서. 이 유대교가 제공하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뿐입니다. 그럼 3장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 위의 것들을 찾아보세요. 지구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의 반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유대교가 골로새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다양한 제안이 주어졌습니다. 절대적인 확실성은 우리를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와 같은 책에서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사비평과 역사적 접근의 두 번째 측면에서. 그것이 본문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텍스트 내의 역사적, 문화적 참고 자료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자와 독자 사이의 공유된 이해를 종종 언급하는 참고문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조사하고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몇 가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신약성경의 두 부분에서 따왔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적어도 두 곳에서 그 중요성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 도 마찬가지입니다 . 하지만 특히 우리가 다룬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마리아인에 대한 언급이 나온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20세기와 21세기 미국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길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는 라벨을 읽을 때 두렵습니다.

우리는 저자가 의도한 대로 성경 본문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독자들은 그것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가 실제로 사마리아에 남아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 당신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나라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왕국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쪽 왕국은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남왕국 유다.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는 사마리아에 남아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배시킨 외국인들은 실제로 그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배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대부분의 유대인이 이종 품종으로 본 제품입니다. 아니면 순전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오랜 갈등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갈등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나쁜 관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다른 유대인 사이에는 사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앉으셨을 때.

그녀가 여자였을 뿐 아니라 주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주인공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역사는 유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갈등과 나쁜 관계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 비유가 읽혀지는 방식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있었다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가장 가까운 비유는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일 것입니다. 비유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비유는 아마도 바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다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간과 될 수 있는 몇 가지 역사적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많은 논평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아들이 상속 재산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적어도 아버지에 대한 극심한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역 사회 내에서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흥미로운 참고자료는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에게 인사한다는 사실입니다.

1세기에는 그런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자기처럼 자기를 모욕한 아들에게 달려가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극도로 품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굴욕적이었습니다. 앞서 이 비유를 논의할 때 이미 언급한 대로 이에 추가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아무데도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서 안 될 것입니다. 주변에 이웃이 하나도 없는 외딴 목장에서.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인류나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대신에 이것이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중동의 시골마을. 그래서 모두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본 아버지는 품위가 없고 굴욕적인 태도로 아들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갑자기 이것은 단지 탕자에 대한 비유가 아닌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겸손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몸을 굽히는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깊이. 이제 비유를 읽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진 어떤 아버지도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은 비유의 충격적인 가치 중 일부일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유의 요점은 탕자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과 굴욕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모욕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몸을 굽힐 때마다. 그리고 죄와 배척으로 그를 모욕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돌아올 때마다. 모욕을 가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러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인간 아버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를 돌려받기 위해 몸을 굽히면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회개하여 그에게 오는 사람. 신약성서와 구약성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 역사적 비평적 접근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놓칠 수 있는 통찰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껏해야 놓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지 못할 때. 역사적 비평 방법에 관한 두 가지
마지막 참고 사항. 다음 두 세션에서는 계속해서 방법론과 비판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역사적 접근 방식의 범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 대한
저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텍스트 뒤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비판적 접근과 관련된 두 가지 다른 관찰이 있습니다. 첫번째.
우리는 이미 구약과 신약을 해석하는 역사적 접근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증거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계시가 되십시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 자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 구속 행위.

그 궁극적인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에 참여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시는 세상의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서.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성경 본문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역사적 평가가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두 번째 관찰은 자격을 통한 것입니다. 위험 중 하나는 역사적 재구성을 해석의 주요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감받은 것이 성경 본문 자체임을 보았습니다. 본문 자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산물이다.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나의 해석 활동의 주요 장소입니다. 내 해석은 성경 본문 자체이다. 재구성된 역사적 배경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문서의 역사적 배경을 본 것처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지식을 가정하고 이에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역사적 참고자료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통역사는 항상 줄타기 같은 느낌으로 걷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것과 본문에서 기본을 찾는 것 사이. 텍스트는 우리의 해석 활동의 주요 장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의 해석이 주로 배경에 있는 나의 역사적 재구성에 관한 것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균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자체가 우리 해석의 주요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성경 본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해석 활동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텍스트의 역사와 텍스트 속의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텍스트의 의미를 밝히고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방법, 특히 일련의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역사 비평이라는 더 넓은 범위에 속합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세 가지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 두 세션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출처, 형식, 편집 비평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역사 비평의 더 넓은 분야의 일부입니다. 그 점에서 그들 모두는 어떤 면에서 본문 뒤에 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제작에 역사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역사적 질문을 해보세요. 아니면 작가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쓴 저자의 의도.

그리고 이 세 가지 또한 우리는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역사적, 논리적으로 발전한다. 소스와 형식 비평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약성서 뒤에 있는 출처나 구전 형식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신약성서 또는 구약성서 자체의 최종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니면 다시 그들은 모두 저자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리고 편집 비평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출처나 개별 형식을 어떻게 취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엮어 성경 본문으로 만들었습니다.

텍스트 뒤에 있는 소스와 형식을 텍스트의 최종 형식으로 가져오는 책임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 출처, 형식, 편집비평은 보다 일반적으로 역사비평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 구약과 신약의 해석에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살아 있고 존재하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더 새롭고 현대적인 해석 방법에 뒷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이나 해석에 관한 일부 교과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는 종종 간과되거나 매우 짧은 치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더 새롭고 최신의 방법에 의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논리적으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스 비평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약과 신약 모두에 대한 비판의 출처가 있습니다. 비록 구약과 신약에서 약간 다르게 작동하지만. 그것이 다루는 책과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그러나 구약과 신약 모두의 자료 비평은 기본적으로 기록된 본문을 뒤쫓으려는 시도입니다. 창세기든, 역대상하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든요. 아니면 아마도 바울의 편지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로 쓰여진 텍스트를 뒤쫓으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저자가 텍스트 뒤에 숨어 있는 활용했을 수 있는 서면 소스를 찾아냅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들은 서면 자료에 의존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텍스트 자체에서 발견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비평의 전성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서면 소스에 대해 논의하는 데 종종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자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의 저자가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해당 소스를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그 출처가 어디서 왔는가? 어떤 공동체나 상황을 반영하는가? 원래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다루었나요? 원래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등.

등등.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전체 자료 비평은 단순히 쓰여진 텍스트를 뒤쫓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사용된 소스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다시 우리는 이미 구약성경에서 두 가지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소스 비평이 실제로 유효한 사업임을 시사합니다.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저자들은 때때로 이전 자료에 의존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거나 추론적일지라도 해당 소스를 재구성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첫째와 둘째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주제의 역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저자가 말하는 내용을 자주 언급합니다.

누가 흔히 이런 일들이 왕의 연대기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는가? 아니면 그런 것. 그래서 저자는 역사적 자료인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곡에 끌렸다.

또는 누가복음 1장과 1장부터 4장까지. 누가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둘러싼 사건들의 기록을 목격한 다른 증인들도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자신의 설명을 작성하기 위해 그 자신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된 구전 자료와 기록 자료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거나 기록한 다른 사람들을 언급할 때. 그는 다른 복음서 중 하나 이상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마태나 마가 또는 아마도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다른 가능한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루크는 그 점을 알고 있었고 지금은 그 자신의 작품에 그 점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료비평은 그러한 본문을 바탕으로 신약과 구약의 저자들이 자신의 글을 작성하는 데 활용한 기록된 자료가 무엇인지 재구성하고 묻는 시도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자료비평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해석학에 기여하는데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의 다음 단계인 형식비평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